

전 남

시내버스 양사 분쟁 장기화  
여수시 보조금 중단 초강수

차고지 사용료·식대 다름, 시위 등 사회 문제화

여수시가 차고지와 식대사용료 갈등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한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해 매달 지급해 온 보조금 지원을 끊는 초강수를 뒀다. 여수시는 "여수여객과 동양교통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운영해야 할 차고지와 식대 사용료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며 "양사가 합의할 때까지 시 보조금은 중단하고 불법주차 등 운수 지도 감독도 강화한 상태다. 이번 여수시내버스 차고지 분쟁은 지난 1998년 공동 배차제 시행 첫해와 지난 2003년에 이어 3번째다. 이번 분쟁은 지난 7월 27일 여수시내버스 3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동양교통 측이 신월동 차고지 사용료 인상과 식당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이해에 동양교통 측은 "여수는 공동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공동 배차제 시행 때부터 각 업체의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했다"며 "지난 2003년 동양교통의 차고지인 미령 기점이 공동 기점으로 변경된 만큼 여수여객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동양교통은 또 "식대는 지난 13년 동안 인상 한번 없이 2500원이었는데 이번엔 식당 운영이 민간 업체로 바뀌면서 식대를 위탁자와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차고지 사용료는 3사가 합의해야 결론을 내는 데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내버스 분쟁에 시민들의 시선은 골치 아프다. 시민 김모(43·여수시 수정동)씨는 "박람회와 앞두고 교통질서와 친절 운행을 만전을 기해야 할 버스가 아니라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다"며 "여수시가 연간 수십억원의 혈세를 보조하면서도 조정역할 하나 못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코스모스 길 사이로 담양군 금성면에 조성된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테마형 꽃길'에 코스모스 등이 활짝 피어 하이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테마형 꽃길은 금요일에서 담양읍까지 5.2km 구간에 조성돼 있다. (담양군 제공)

타지역 명문보다 지역고교로

나주 역의 유출 성적우수 중학생 '유턴 현상'

나주 관내 성적우수 중학생들의 타 지역 명문 고교 진학 추세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돼 지역 고교의 경쟁력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나주 중학교의 경우 지난 2월 졸업생 가운데 우수학생들이 타지역 H고 12명, N고 5명,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진학했으나, 2012년 진학상담을 거친 결과 관내 고교로의 진학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우수학생들의 '유턴 현상'은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타지역의 고교로 진학했던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나주고등학교가 2012년부터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전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고, 나주시가 초·중·고등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타지역 H고에 자녀를 진학시킨 김모(45)씨는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우수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며 타지역의 명문고 진학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나주중학교 3학년의 한 진학담당 교사도 "진학상담 결과 예전에는 명문 사립고를 희망해 우수학생이 관외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내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관심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체재광 교육지원과장은 "교육부자에 대한 투자와 효과는 특성성 단계간에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육여건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곡성 심청 효문화대축제 50만명 찾아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  
관광객들 운정 줄이어



곡성군이 '심청 효문화대축제' 개최를 통해 '효와 심청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삼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만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축제기간 매표·사파·육수·다슬기 등 지역 특산물 판매장 운영으로 6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읍·면 단거리 판매장에서 800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효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6개의 주제별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 체험행사를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특히 올해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저소득층 노인의 개인 시술비 마련을 위한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에 축제 참가자와 지역민의 정성이 이어졌다. 축제 기간동안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 운동을 벌여 150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실시한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

를 통해 3억7000여만원을 모금, 백내장 등 안과질환을 앓은 도내 저소득층 노인 1344명이 개인수술을 받았다. 허남석 곡성군수는 "이번 축제는 잊혀져 가는 효를 '가족애'로 새롭게 재조명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나주 G마트 '사랑의 나눔 뒤통' 설치 매월 쌀 후원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는 '착한 가게'가 있어 화제다. 나주 성북동에 위치한 G마트는 지난해 초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크게 성장한 만큼 수익의 일부분을 환원하겠다'며 성북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인근 금계동과 송월동 등 3군데의 주민센터에 '사랑의 나눔 뒤통'을 설치해 놓고 매월 20kg들이 쌀 4포대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모씨는 "직원들과 마주치지 않고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뒤통을 설치해 편하다"고 말했다. G마트 조순순 대표는 "진정한 나눔인 '타인능해'(他人能解)의 마음을 모두가 품고 살아가면 우리 사회가 한층 따뜻해지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여수시 웰빙채소 '잎방풍' 지역특화작목 육성

여수시가 기능성 웰빙채소인 '잎방풍'을 몰산갯에 버금가는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한다. 여수시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2012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잎방풍 산업육성 프로젝트'가 신소득·특작분야 전국 1위로 선정돼 2012년도 광복(지역광역특별회계) 예산 2억5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억3000만원(광복 70%·시비 30%)을 투자해 ▲잎방풍수확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잎방풍 선별·유통 시스템 개선 ▲대표브랜드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 남면 금오도에 95ha 규모의 잎방풍 재배단지도 조성돼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아침밥 먹고 학교 감시다"

순천농협 우리쌀 소비 촉진 캠페인 호응

순천농협(조합장 이광하)이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쌀 소비촉진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아침밥먹고 학교가기 캠페인'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농협 여성조직연합회 봉사단(회장 박영희) 회원 30여 명이 지역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과 양파, 감자, 김자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1000인분의 주먹밥을 만들어 최근 순천 강남여고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주는 행사를 가졌다. 또 순천농협 여성조직연합회 봉사단은 농촌지역의 봉사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체계적인 봉사 프

로그램을 계획해 농촌지역에 버려진 ▲농약병 및 폐영농쓰레기 수거운동 ▲어버니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매실·복숭아파기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광하 조합장은 "청소년들이 외래음식에 길들여져 밥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아침밥먹고 학교가기 캠페인을 점차 확대해 지역 청소년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 물(매매)  
■토지600평건물4,000평(매가 210억) 보증금100억/월55,000만원  
■토지590평건물700평(매가1110억)보증금40억/월33,000만원  
■토지200평 건물75평(매가32억) 보증금7억 월세 91,700만원  
■토지164평 건물4600평(매가730억) 보증금9억/월세1,700만원  
**토 지(매매,상무지구)**  
(회사사육,평안,학원,카라부지 등)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유동)▲평당950만원  
■833㎡(252평)-평당1,300만원 (상무지구)번화가 시가리코너  
■1,980㎡(600평)-평당1,200만원 (상무지구) (우송가)  
■3,400㎡(91,000평) 평당750만원 일식점(안) (회사사육,오피스텔 등 복합)  
■동림동(생산지)유음-하남 건대코너(4,470㎡)1억1,352평 - 평당330만원 (역시정 전월)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 및 시외의 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상과 연일 손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전남광역시 재활용 공장(PP,PE수출) 급매  
▶대지: 2,000평 / 건물 500평  
▶영업권 및 자산 일체 (현재 흑자 영업중)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  
자연복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8.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 지 급 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 지 : 4,000평  
•전 : 9,500평  
•합 계 : 13,500평  
•매매가 : 평당 15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사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영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태호전우이사 011-684-3886  
공장/토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아파트/빌라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주택/재개발 김태호전우이사 011-684-3886  
근린주택 김규석이사 010-6654-6888  
병원,교회,사회,목욕탕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경매전문회사 직원모집]  
\* 고객이익우선원칙을 소중하게 지켜갈 경력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상담 및 접수 236-3400